

**심근SPECT의 역재분포(Reverse Redistribution)와 심근조영초음파(Myocardial Contrast Echocardiography)로 진단된 심내막하경색(SubEndocardial Myocardial Infarction)과의 상관 관계**

인하대병원 핵의학과<sup>1</sup>, 심장내과<sup>2</sup>

최원식<sup>1</sup>, 김성온<sup>1\*</sup>, 권 준<sup>2</sup>, 현인영<sup>1</sup>, 박금수<sup>2</sup>, 이우형<sup>2</sup>

**목적 :** 역재분포의 정확한 기전은 모르나 비관벽경색(Nontransmural Myocardial Infarction)에서 관찰되는 현상임이 보고 되었었다 (Weiss AT, et al:Am Coll Cardiol 1986;7:61-7).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살펴 보고자 심근조영초음파(MCE)와 심근SPECT를 비교하였다. MCE는 관상동맥내로 조영제를 주사 한 후 심근의 심내막(Endocardium)쪽과 심외막(Epicardium)쪽의 조영의 차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리라 생각되었다.

**방법 :** 본 병원 심장내과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된 후 경피적혈관성형술을 시행한 재관류 치료 환자 중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. 경피적혈관성형술 후 24시간 이내에 휴식/지연 심근SPECT를 시행하여 역재분포 유무를 관찰 하였고, 경피적혈관성형술시 시행하였던 MCE와 비교 분석하였다.

**결과 :** 20명중 역재분포를 보인 환자는 11명이었으며, MCE에서 SEMI로 진단된 환자는 10명 이었다. 이 중 심근SPECT에서 역재분포를 보이고 MCE에서도 같은 곳에 SEMI로 진단되어 소견이 일치했던 환자는 8명, 두 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환자는 7명, 심근SPECT는 양성이나 MCE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난 환자는 3명, 심근SPECT는 음성이나 MCE가 양성인 환자는 2명 이었다.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이었다(Kendall 상관계수= 0.5025, P= 0.0285). 불일치된 경우 중, 역재분포를 보이거나 MCE에서 SEMI가 없는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병력을 분석하였더니, 모두 심전도상 Non-Q-wave infarction 의 소견을 보였다.

**결론 :** 재관류 치료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심근SPECT에서의 역재분포 유무와 MCE에서의 SEMI 유무가 일치된 경우는 75% (15/20)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. 또한 역재분포는 상당수가 SEMI를 반영하고, MCE로는 관찰되지 않는 정도의 비관벽경색도 반영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.

(본 연구는 1998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)

**심첨비후성 심근증의 디피리다몰 부하 Tl-201 심근 SPECT**

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핵의학과, 진단방사선과, 심장내과

김호성, 문대혁, 김익성, 신중우\*, 송재관, 이희경

**목적 :** 심첨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 디피리다몰 부하 Tl-201 SPECT에서 관찰되는 관동맥 혈류예비능 감소의 빈도와 부위등의 소견을 분석하고, 정상인 및 좌전하행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구별되는 특징을 알고자 하였다. **방법 :** Tl-201 SPECT을 시행한 심첨비후성 심근증 환자 25명(비후군)을 대상으로 하였고, 대조군은 정상 심혈관조영술 및 Tl-201 SPECT 소견을 보인 정상군 30명과 중원위부 좌전하행 관상동맥질환이 있고 Tl-201 SPECT에서 심근허혈 소견을 보인 관동맥군 23명으로 하였다. Tl-201 SPECT의 극성지도를 9개의 분절로 나누어 부하와 재분포시의 상대적 Tl-201 섭취, 비정상 제거율, 그리고 역재분포 유무를 알아보았다. 비후군에서의 임상 증상, 심초음파로 측정된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 그리고 제거율과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. **결과 :** 부하영상은 정상군과 비교시 비후군이 심첨하벽, 심첨측벽, 기저하벽에서 유의한 상대적 Tl-201 섭취 감소가 있었다(p<0.05). 재분포영상은 정상군과 비교시 심첨, 심첨전벽에서는 상대적 Tl-201 섭취 증가, 기저하벽과 기저전벽에서는 감소가 있었고, 관동맥군과 비교하여 심첨, 심첨전벽, 심첨중벽의 섭취 증가, 기저측벽의 섭취 감소가 있었다(p<0.05). 비정상적인 제거율은 14명(56%)에서 관찰되었고 부위는 심첨전벽(9명), 심첨측벽(9명), 심첨하벽(8명), 심첨(7명), 그리고 심첨중벽(3명)였다. 역재분포는 10명(40%)에서 있었고 기저하벽(9명), 기저전벽(5명), 기저중벽(1명), 그리고 기저측벽(1명)에 있었다. 비후군의 제거율은 흉통, 심초음파 소견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. **결론 :** 심첨비후성 심근증은 디피리다몰 부하 Tl-201 SPECT에서 심첨과 심첨벽 부위에서 관동맥 혈류예비능의 감소를 보였다. 재분포 영상에서 심첨과 심첨벽 부위의 상대적 섭취 증가와 기저벽의 역재분포를 보이는 소견은 관동맥질환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소견으로서 관동맥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.